



미 증시, 중국 관세 인하, JP 모건 효과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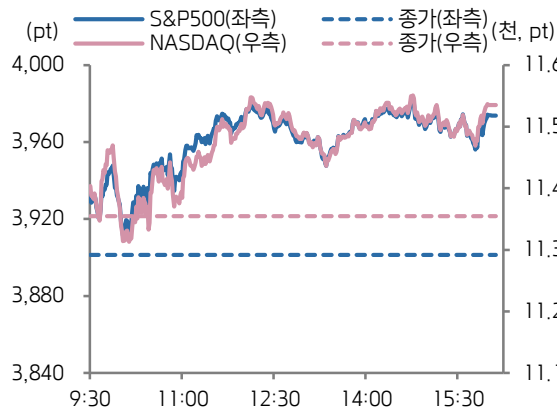
23 일 (월) 미국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세 인하 고려 발언, JP 모건(+6.2%)은 가이던스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 S&P500 은 0.8% 상승 출발 이후 대형 은행, 테크주 급등으로 상승폭 2%까지 확대. 다만 오후엔 차익실현 압력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임.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는 7bp 상승(2.86%), VIX 지수는 3% 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이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9월 금리 동결 가능성 발언도 긍정적으로 작용(다우 +1.98%, S&P500 +1.86%, 나스닥 +1.59%, 러셀 2000 +1.1%).

바이든 대통령은 23 일(월) 일본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 대응 차원에서 중국 수입품 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 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산 의류, 전자제품 등 품목에 부과된 연간 3,700 억 달러 규모에 관세임.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백악관 경제팀이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업종별로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금융(+3.2%), 에너지(+2.7%), IT(+2.4%)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소비재(+0.6%), 헬스케어(+0.8%), 유틸리티(+1.2%)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경기소비재는 오전 2% 가까이 급락했지만, 오후 반등 속에서 상승 전환. 이날 다우 운송 지수(+2.0%), 다우 항공 섹터 지수(+2.1%) 모두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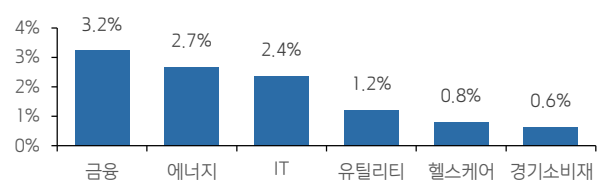
종목별로 JP 모건의 가이던스 상향 영향으로 BOA(+5.9%), 웰즈파고(+5.2%) 등 대형 은행주들이 급등. 애플(+4.0%), 마이크로소프트(+3.2%), 알파벳(+2.2%) 등 빅테크도 강하게 반등. 최근 부진했던 월마트(+2.9%), 코스트코(+3.1%) 등 소매 유통업체들도 상승. 스타벅스(+0.04%)는 이날 러시아 철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마감, 갭(-5.5%)은 씨티의 투자이견 하향 여파에 급락. EA(+2.3%)는 M&A 딜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 지금까지 디즈니, 애플, 아마존이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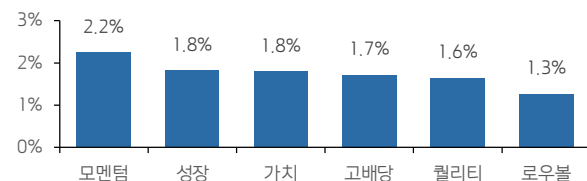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73.75	+1.86%	USD/KRW	1,264.19	-0.3%
NASDAQ	11,535.27	+1.59%	달러 지수	102.09	-1.03%
다우	31,880.24	+1.98%	EUR/USD	1.07	+1.19%
VIX	28.48	-3.23%	USD/CNH	6.66	-0.56%
러셀 2000	1,792.76	+1.1%	USD/JPY	127.90	+0.02%
필라. 반도체	2,898.43	+0.55%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757.80	+1.98%	국고채 3년	3.025	+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62	+2.2bp
Eurostoxx50	3,708.39	+1.4%	미국 국채 2년	2.627	+4.6bp
MSCI 전세계 지수	621.89	+0.37%	미국 국채 10년	2.864	+8.3bp
MSCI DM 지수	2,655.91	+0.1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35.31	+2.01%	WTI	110.71	+0.39%
MSCI 한국 ETF	67.13	+1.53%	금	1857.8	+0.5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59.0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JP 모건 등 미국 은행주들의 동반 강세에 따른 국내 금융주들의 주가 강세 가능성 2.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주들의 반등이 국내 성장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3. 스넵의 시간외 주가 폭락이 국내 증시 장중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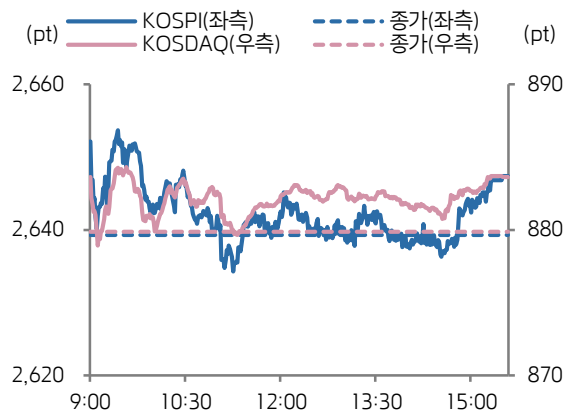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고 인플레이션 장기화 불안 속 연준의 긴축 기조, '21년 역기저효과 등으로 주요국 경제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 시장 급락의 중심에 있었던 약재는 경기 침체 우려였음. 그러나 23일 JP 모건이 예대마진 개선 등 '22년 순이자이익(500억달러→560억달러)을 상향한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은행주들의 견조한 이익, 소비자들의 양호한 신용 여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침체 압박 혹은 실제 침체 시기와 차별화되는 부분. 최근 파월 의장이 시인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 과정에서 성장이 훼손될 수는 있겠지만, 상기 언급한 은행주들의 사업전망, 주요국들의 리오프닝발 이연수요 등을 감안 시 침체 리스크를 벌써부터 주가에 반영해 나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한편, 최근 증시 반등 요인이었던 바이든의 대중관세 완화 발언의 경우, 확정적 아닌 검토 단계에 있으며 미 무역대표부 등 일부 관계자들이 중국 견제 수단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실제로 관세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그만큼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의지가 높다는 점은 시장에서 중립 이상의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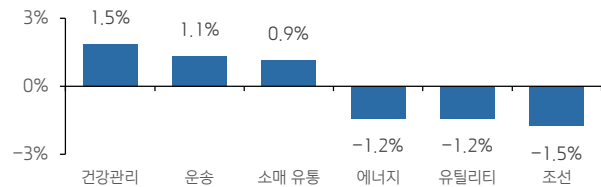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달러화 강세 진정 등으로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미국 증시에서 애플(+4.0%), 마이크로소프트(+3.2%) 등 성장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국내 관련 밸류체인 및 성장주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다만,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스넵(-3.4%)이 인플레이션, 정책 리스크 등으로 보수적인 가이드를 제시함에 따라 시간외 주가가 30%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의 반등을 제약할 수 있음. 이를 고려 시 국내 증시는 전반적인 지수 상승 탄력이 제한된 채 한미 정상회담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업종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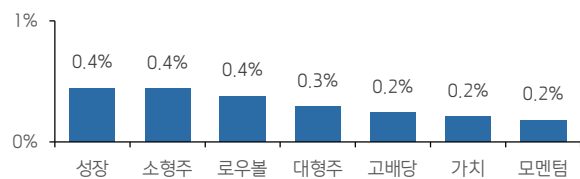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